청주 원도심 내 현존하는 옛마을의 입지특성과 가로체계의 변화

A Study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Road System of Existing Old Settlements in Cheongju City

권미선*
Kwon, Mi-Sun

김태영**
Kim, Tai-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road systems of existing 22 old settlements in Cheongju downtown of Korea. These old settlements are classified largely into two types by geographical feature; Hill type located in ridge and Valley type in the valley from the ridge. The Hill type is further categorized into San-rock located on ridge and Gogae located on hillside, and the Valley type into closed large and small valley, that is, Daegok and Sogok by the shape and size of the valley. The road systems are classified into outer road, approaching road, inner road, and side road. In San-rock type villages, Inner road is changed side roads by new arterial road, and new ones become inner road. The outer road are almost cut off, but side roads maintain. In the case of the Gogae type, main road becomes inner road, maintain old hierarchical road, and in other cases, villages are formed around side roads derived from main road, and outer road and inner road are cut off. Among the Valley type, Daegok type maintains old hierarchical road, while for Sogok type, outer roads are cut off, and new roads are outer road.

Keywords : Downtown in Cheongju, Old settlements, Hill type, Valley type, Road system

주요어 : 원도심, 옛마을, 산지형, 곡형, 가로체계

I. 서론

성곽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륙지방 중소도시의 대부분은 예전부터 성곽 주변으로 마을들이 산재하여 있었다. 근대화, 도시화에 따라 도시권역이 확대되면서 이들 마을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근대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격자형 도로망이 개설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새로운 도시공간구조로 개편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심 옛마을¹⁾은 농촌마을에서와 같이 향, 지세 및 수체계 등과 같은 입지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에 순응, 혹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현존하는 22개의 도심 옛마을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형성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지세, 좌향, 경사도, 진입 및 마을배치형태와 같은 입지특성을 알아보고, 옛마을의 공간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로체계가 오늘날의 새로운 가로체계를 어떻게 수용하면서 지속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로체계는 전통마을의 길의 위계에 따라 바깥길, 어귀길, 안길, 셋길로 구분하였으며, 새로운 가로에 의해 이들 길의 고유한 역할 변화를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문헌조사에서는 ‘청주 지명유래²⁾’, ‘청주시지³⁾’, ‘청주시청 홈페이지⁴⁾’, ‘청주옛길⁵⁾’ 등을 통해 원도심⁶⁾ 내에 현존하는 22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2010년 항공사진을 토대로 1913년 지적원도⁷⁾ 및 1968년 항공사진⁸⁾을 비교하여 옛마을의 영역과 위치를 유추한다. 또한, 1/50,000 지형도에서 옛마을의 지형지세와 수체계 분석 등을 통해 입지유형을 분류하고, 1913년도 지적원도 및 1960년대 지적원도에서 가로체계의 변천과정을 유추한다<그림 1>. 1913년도 지적원도에서 유추한 가로체계는 전통마을의 길

1) <정기호(2004), 전통사상의 반영으로 본 한국의 옛마을에 깃든 형상, 한국전통조경학회, 2, 52쪽>에서는 동족부락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최재영(2000), 식물이름을 반영한 옛마을 지명에 대한 고찰, 한국정원학회, 18(3), 30쪽-31쪽>에서는 도시나 농촌지역 할 것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전래 마을로 옛마을을 언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족, 씨족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는 전통마을과 달리 지형적 특징에 따라 도심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지역의 독특한 풍토환경 및 생활풍습이 유지되고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옛마을’이란 용어를 채택한다.

2) 청주시 충북대인문학연구소(1999). 청주 지명유래, 청주시.

3) 청주시(1997). 청주시지(上, 下), 미진문화사.

4) <http://www.cicity.net/>

5) 김태영(2007). 청주옛길, 크리폼.

6) 청주시(2008). 2025년 청주도시기본계획, 청주시, 공간구조 설정에 있어서 기존의 도심내부를 원도심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7) 국토지리정보원(1913). 1913년 청주시 지적원도.

8) 국토지리정보원(1968). 1968년 청주시 항공사진.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정회원,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그림 1. 가로체계의 변천과정(‘바깥덕벌’의 사례)

의 위계에 따라 바깥길, 어귀길, 안길, 샛길로 구분하며, 새로운 가로망에 의한 옛길의 변화를 분석한다.

현장조사를(2010년 6월 30일~7월 2일) 통해 마을의 입지유형을 재확인하고, 옛 가로체계의 현존현황을 파악한다.

II. 청주 원도심과 옛마을

1. 청주 원도심 영역

청주는 산, 하천, 나무와 같은 풍부한 자연환경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충청권의 중심적 위치를 점하며, 행정과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 발생한 성곽도시였다.⁹⁾ 근대기에 이르러 시구개정사업에 따라 1911년에서 1915년 사이에 청주 읍성이 허물어지면서 시작된 청주의 근대적 도시건축의 모습은 무심천 변과 우암산 자락을 끼고서 남북방향의 기다란 선형의 격자도시를 이루게 된다.

1921년 북문 밖으로 청주-조치원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기존 읍성을 중심으로 남서로는 무심천, 동으로는 당산에 이르기까지 사주면 일부를 편입하면서 청주의 시가지가 확장되었다. 이 곳이 현재의 성안동과 중앙동 지역으로, 구도심으로 불리어 왔다.

이 후 1939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설정된 시가지계획구역이 현재의 원도심인데 이는 1968년까지의 청주면 범위이다¹⁰⁾. 청주 원도심 총면적은 18.29 km²이고,

그림 2. 청주시 도시계획구역 변천과정도

9) 청주시지편찬위원회(1976). 청주시지, 청주시, 213.

10) 청주시(1994). 청주도시계획변천사도집, 청주시.

2010년 현재 11개 법정동으로 상당구 8개동(우암동, 내덕동, 탑동, 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동), 흥덕구 3개동(사직동, 모충동, 운천동, 수곡동)이 이에 속한다.

청주 원도심 영역을 중심으로 무심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으며, 동쪽에 우암산 및 당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체계, 서쪽의 운천공원 및 사직공원, 수곡동으로 이어지는 구릉체계로 둘러싸여 있다. 기존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포함하면서 청주읍성, 남석교, 관아 등과 같은 역사·문화적 자원이 산재하여 있는 곳으로, 청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대표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2. 대상마을의 선정경위

연구의 대상인 청주시 원도심 내에 현존하는 옛마을들을 선정함에 있어, 원도심 영역인 11개 법정동에 위치한 마을과 관련하여 ‘청주 지명유래’에서 80개, ‘청주옛길’에서 10개, 총 90개를 추출하였다. 이들 마을은 우암동 6개,

그림 3. 청주 원도심 영역과 현존하는 22개 옛마을 분포현황도

표 1. '산'과 '곡'계 옛마을의 입지 현황

구분	번호	마을명칭	지명유래	면적 ¹⁾		해발고도(m)		사면 방향	마을거리 ⁴⁾		마을 경사도 (°) ⁵⁾	배치 형태	좌향 좌향	마을 진입로	도로 및 수계
				(m ²)	(평)	초입 ²⁾	마을 ³⁾		안길 방향	수직 방향					
산지형	산록형	1 양달말(탐동)	양지 바른쪽에 위치	16,777	5,075	48	55	남	198	155	2.59	군집형	동남	어귀길	이격
		2 안덕벌	골짜기 안들로 들어간 지점	15,618	4,724	54	65	서	175	-	3.60	군집형	남	바깥길	평행
		3 아랫영우리	영우리 아래쪽	13,724	4,152	53	60	남	212	108	3.71	선형	동남	어귀길	-
		4 바깥덕벌	덕벌의 바깥쪽	11,701	3,540	41	52	서	162	-	3.88	군집형	남	바깥길	-
		5 고당	고씨 동네, 높은 곳에 당집위치	11,721	3,868	50	75	동	260	83	16.76	선형	동남	어귀길	이격
		6 호두나무거리	호두나무가 있는 마을	6,203	1,876	53	67	남서	75	-	10.57	군집형	남	어귀길	이격
		7 평말	구석에 있는 마을	6,861	2,264	58	65	남	132	73	5.48	선형	남	바깥길	이격
		8 벌뜸	벌판에 있는 작은 마을	6,849	2,260	50	60	북	147	75	7.59	선형	동남	바깥길	이격
		9 충렬탑뒷말	충렬탑 뒤에 위치	3,185	963	64	70	서	113	-	3.04	군집형	남서	바깥길	-
		10 양달말(사직동)	양지바른쪽에 자리잡은 마을	2,986	903	50	55	동	135	78	3.67	선형	동	바깥길	평행
	고개형	11 잣말	고개 밑에 있는 마을	4,808	1,587	70	83	남	95	-	7.79	군집형	남	바깥길	이격
		12 정문안말	정문안쪽에 있는 마을	4,662	1,538	73	90	동	131	-	7.39	군집형	남	바깥길	이격
		13 배터	배터 밑에 있는 마을	4,323	1,308	55	68	북동	148	-	5.02	선형	동남	바깥길	이격
		14 새터	바랑골 위쪽에 있는 마을	3,163	956	50	60	동	72	-	7.91	군집형	남	바깥길	이격
		15 밤고개	밤나무가 많은 고개	3,943	1,193	44	50	남서	133	-	2.58	군집형	남	바깥길	이격
곡형	대곡형	16 향교골	청주 향교 앞에 있는 마을	13,588	4,110	63	82	서	140	-	7.73	군집형	동남	어귀길	평행
		17 가좌골	가장자리에 있는 골짜기	11,712	3,865	63	77	남	220	150	5.33	군집형	남	어귀길	평행
		18 탑골	탑이 있는 마을	6,839	2,069	53	62	남서	93	-	5.53	군집형	남	어귀길	이격
	소곡형	19 수곡동옛마을	-	7,376	2,231	58	68	북	143	-	4.00	군집형	동남	어귀길	이격
		20 용사태	청룡과 백호로 이루어진 터	6,782	2,238	60	65	남	115	-	2.49	선형	남	어귀길	평행
		21 순천박씨	-	6,103	2,014	60	70	남	200	115	4.97	군집형	남	어귀길	이격
		22 도독골	골이 두둑한 형상	3,276	1,081	44	48	동	92	-	2.49	군집형	남	어귀길	이격

1) 마을 영역은 1913년 지적원도에서 '대지'로 된 필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2) 마을어귀, 안길과 어귀길이 만나는 곳, 마을 경계가 시작되는 곳을 일컫음 3) 마을 영역의 끝단을 말한다. 4) 마을초입에서 마을영역의 끝단까지의 거리 5) 마을경사도는 마을거리와 마을초입·마을끝단의 해발고도 차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마을이 안길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치된 경우는 안길의 수직방향으로 마을거리를 산정하였다.

내덕동 14개, 탐동 4개, 대성동 4개, 영운동 12개, 금천동 10개, 용담동 7개, 사직동 10개, 모충동 9개, 수곡동 10개로 동쪽의 우암산 자락과 서쪽의 구릉체계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내덕동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2010년 지형도 및 GIS도에서 청주시의 골목길 이름¹¹⁾과 비교하여 90개 마을의 개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뒤, 1968년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현존하는 51개 마을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현존하는 옛마을이며, 청주시의 본격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남아있던 마을이다.

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형성된 옛마을을 찾기 위해 1913년 지적원도에서 51개 마을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 중 지목이 '대지(垈)'로 표기된 필지를 갖고 있는 마을 22¹²⁾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주 원도심 내 현존하는 이들 22개의 옛마을은 동쪽의 우암산 자락인 탐·대성동과 서쪽의 구릉체계인 모충동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3. 대상마을의 입지유형

22개의 옛마을은 지형적 형태에 따라 능선에 마을이 위치한 '산지형'과 산마루를 중심으로 골이 패여 들어간 부분에 위치한 '곡형'¹³⁾으로 입지 유형을 대별할 수 있다¹⁴⁾. 산지형 15개, 곡형 7개로 산쪽에 입지하고 있는 마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지형의 옛마을은 지형적 형태에 따라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록형'과 산허리인 고개에 위치한 '고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곡형의 옛마을은 곡의 형상에 따라 크고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대곡형'과 얇고 작은 골짜기에 위치한 '소곡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록형 마을은 10개, 고개형은 5개, 대곡은 3개, 소곡은 4개로 산록형 마을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13) '곡(谷)'은 너비보다는 길이가 현저하게 길고, 그 속으로 하천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다. 계곡은 예로부터 교통로로서 이용되어 왔으며, 인간들이 정주하는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14) <이원선(1998), 지명유래에서 본 자연마을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존에 이루어진 전통 취락의 지형적 입지 유형분류를 보면, 대부분의 전통 취락들은 산지나 구릉지로 둘러싸인 하곡지 깊숙한 곳에 분포하고 있어 평야, 해안평야 등을 제외하고 산과의 관계를 해석해 유형화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륙지방도시에 위치한 청주 원도심에 현존하는 옛마을을 유형화하는 것으로, 구릉, 산록, 계곡(곡), 분지 등 여러 입지 유형 중에서 산지와 곡에 마을이 주로 분포하고 있어 크게 둘로 분류하였으며, 산지를 세분화하였다.

11) <김태영(2007), 청주옛길, 크리프>에 나온 옛길의 지명, 위치 참조
12) 1913년부터 현존하는 옛마을은 총 23개이나, 이 중 영운동에 위치한 '수원지길'은 다른 마을들과 달리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를 입기 쉬운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영운동에 위치한 '수원지'로 인해 형성된 일시적인 곳으로, 주거지 위주의 마을이 아닌 편의시설이 주로 분포하고 있던 것으로 유추되어 대상마을에서 제외하였다.

표 2. 산지형 옛마을

마을의 규모를 보면, 산록형은 약 13,000 m²로 다소 큰 것과 약 6,000 m²인 것이 있으며, 고개형은 약 3,500 m², 대곡은 약 12,000 m², 소곡은 약 6,000 m²로, 고개형이 가장 작은 규모를 갖고 있다. 또한, 대곡의 마을 규모는 소곡의 약 2배의 크기이다. 산지형에서 가장 큰 마을은 ‘양달말(탑동)’이고, 비교적 평탄한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면서 산쪽으로 마을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곡계형에서 가장

큰 마을은 ‘향교골’이고, 청주 향교 앞에 위치하면서 뚜렷한 계곡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

마을의 해발고도를 보면, 산록형은 약 60 m, 고개형은 약 75 m, 대곡형은 약 75 m, 소곡형은 약 64 m에 위치한다. 청주 읍성의 해발고도는 약 42 m로, 옛마을은 경사면에 위치하고, 이 중 고개형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곡형은 소곡형에 비해 높은 곳에 입지한다.

III. 옛마을의 입지특성

1. 산지형 마을

산지형 마을 중, 바깥길¹⁵⁾에서 마을 내로 직접 진입하는 산록형 마을은 마을 안길과 떨어져 평행하게 수로가 지나가며,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에 마을이 입지하고 있다. 평지와 같이 보이는 ‘양달말(탑동)’, ‘안덕벌’, ‘아랫영우리’, ‘바깥덕벌’ 4개 마을은 마을 지형의 경사도가 약 5° 미만이고, 나머지 6개 마을은 약 9° 경사의 산자락에 입지하고 있다.

15) 바깥길: 마을과 마을을 연결시켜주는 도로, 통과도로성격이 강하고, 지금의 간선도로의 개념이다.

어귀길: 큰길과 마을을 연결, 안길에만 연결되며 주위에 주택을 배치하지 않는다.

안길: 마을주민 전체가 이용하고, 마을내부의 가장 큰 도로이다.

셋길: 안길에서 파생된 것으로 각 주호로 진입하기 위해 형성된 진입도로이다.

그림 4. 옛마을의 입지유형 예시

산록형 마을 중 경사도가 평탄한 곳에 입지한 마을의 안길은 능선을 따라 길게 뻗으면서 마을을 관통하고 있고, 이 길을 중심으로 주호가 군집되어 있다. ‘양달말(탐동)’, ‘아랫영우리’, ‘바깥덕벌’, ‘안덕벌’이 이에 속하며, 이 중 ‘안덕벌’은 안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서로 연결되고 있었고, ‘바깥덕벌’은 안길이 마을을 관통하면서도 여러개로 나뉘고 있었다. 이들 마을은 평탄한 곳에 위치하여 마을 영역이 크고, 지형지세가 남쪽으로 경사졌으며, 주호배치도 남향으로 일조조건이 양호하다.

산록형 마을 중 경사도가 급한 곳에 입지한 마을의 안길은 평탄한 쪽의 마을 경계를 따라 안길이 지세에 맞춰 형성되고, 안길에서 산쪽으로 샛길이 파생된다. ‘고당’, ‘호두나무거리’, ‘궂말’이 이에 속하며, 안길을 따라 주호가 선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산지형의 또다른 형태로, 산허리에 안길이 형성되고, 그 주위에 마을이 입지하고 있는 고개마을이 있다. 이들 마을들은 산록마을과는 달리 약 7° 이상의 급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을 관통하는 고갯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 시켜주는 통과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교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개길인 안길이 마을을 관통하는 ‘궂말’의 경우, 안길의 양쪽에 마을이 배치되어 군집하고 있다. 고개길에서 파생된 샛길이 있는 경우는 고개길의 한쪽에만 마을이 군집되어 있다. 그러나 ‘배티’의 경우, 군집형 보다는 선형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사면방향이 북동사면으로 일조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마을 거리를 길게 하여 선형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2. 곡형 마을

곡형 마을은 마을 주위를 병풍처럼 둘러싼 산에 의해 시계가 한쪽으로 열려 있다. 또한, 마을로 진입하는 진입로와 수로가 함께 형성되어 있으며, 안길을 따라 마을이 군집하고 있다. 길과 마을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경사도가 급한 산록형의 마을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마을을 둘러싼 지세가 곡의 형상인 것에서 구분될 수 있다.

크고 깊은 계곡에 주축의 방향과 직각으로 된 골짜기에 마을이 위치한 대곡(大谷)¹⁶⁾형 마을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바깥길에서 곡의 방향으로 어귀길이 생겨 곡의 안쪽 깊숙한 곳에 군집하여 있는 것으로, 바깥길-어귀길-안길을 통해 마을진입이 가능하다. 다른 유형의 마을보다 마을 길의 위계가 강하게 나타나며, 계곡 안쪽 단부에 마을이 형성되어 폐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도로와 수계가 인접하여 평행하게 나타나며, 마을 영역 내로 물길이 지나가고 있었다.

곡을 둘러싼 지형지세의 방향을 보면, 서향과 남서향으로 대부분 서향이며, 좌향은 남향과 동남향이다. ‘향교골’,

표 3. 곡(谷)형 옛마을

‘탐골’의 경우 우암산 자락에 위치한 것으로, 대곡형은 지형지세에 따라 마을이 위치하고, 마을 내 주호의 배치는 일조가 양호한 남향으로 배치하며, 마을의 경사도가 6.55°로 다소 가파른 곳에 군집한다. 이처럼 대곡형 마을은 지형지세가 우선시 되어 입지하나, 좌향은 일조가 양호한 방향에 맞추어 형성된다.

커다란 계곡에서 가지처럼 나누어진 산줄기가 곡저와 만나는 부분에 골이 패여있는 작은 골짜기인 소곡(小谷)에 위치한 소곡형 마을의 진입방식은 대곡과 같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바깥길에서 어귀길, 안길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은 골짜기와 얇은 능선에 마을이 위치하여 외부에서 마을 위치가 확인될 정도로 열린 시계이다. 안길과 수로가 떨어져 있는데 수로는 대곡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마을 안으로는 흐르지 않는다.

곡을 둘러싼 지형지세의 방향과 마을의 주호 배치를 보면, 대곡의 흐름에 맞춰 가고 있다. 사면방향은 주로 남향과 동향이지만, ‘수곡동옛마을’의 경우, 북사면이면서 좌

16) 문병선(2006). 곡계 지명 농촌마을의 입지특성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쪽-31쪽 참조

향은 동남향이다. 이는 대곡 방향 쪽으로 주호가 앉혀진 것으로, 전체 마을 지세에서 큰 형상의 곡으로 포함되어 있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순천박씨’, ‘도독골’의 경우 남사면과 동사면에 좌향이 남향으로 일조조건이 양호하나, ‘수곡동옛마을’과 마찬가지로 대곡 방향 쪽으로 주호가 앉혀져 있었다. 이는 일조에 관계없이 소곡형 마을에서는 오히려 대곡을 바라보는 뷰(view)가 마을 입지에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옛길의 변화

1. 옛길의 단절

새로운 가로망의 형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옛길은 단절되어 일부 형상이 블록 내에 남아 그 흔적을 유추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가로망이 옛길의 역할을 담당한다.

옛길 중 특히 안길이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단절된 마을은 옛마을의 구조가 파괴된 것으로, 옛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가로망이 형성된 것이다.

산록형에 2개(평말, 벌뜸), 고개형에 2개(정문안말, 새터), 곡형에 1개(가좌골)로, 주로 고개형에서 옛길이 단절되며, 이 중 고갯길에서 파생된 안길에 군집된 마을의 경우가 이에 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옛길이 단절된 대표적인 입지유형인 고개형에서는 안길이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단절되고, 바깥길은 새로운 가로망이 그것의 역할을 대신하며, 옛 바깥길은 단절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셋길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옛길이 단절된 사례마을에는 산록형과 곡형에도 일부 나타나는데, 이들 역시 안길은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단절된다. 그러나 바깥길은 산록형에서는 폭이 그대로 확장되어 유지되고, 곡형에서는 바깥길이 단절된다. 또한, 어귀길이 있는 산록형과 곡형의 마을에서는 대부분 어귀길이 단절되며, 새로운 가로가 어귀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나 셋길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산록형에 속하는 ‘평말’은 능선을 따라 안길이 길게 뻗으면서 마을이 군집하고 있는 것으로, 마을을 관통하는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옛 안길은 단절되고, 마을 구조가 파괴된다. 그러나, 옛 바깥길은 유지된다. 마을의 중심공

표 4. 바깥길과 안길의 단절

간인 경로당, 우물터 등은 옛 안길 주변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어 옛 흔적을 유추할 수 있다.

고개형인 ‘정문안말’은 바깥길인 고갯길에서 파생된 안길을 중심으로 군집된 마을이며,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안길이 단절되고 마을도 단절된다. 바깥길 역시 폭이 16m인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단절되어 그 기능을 새로운 가로가 이행하고 있다.

곡형에 속하는 ‘가좌골’은 마을을 관통하는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단절되며, 안길과 바깥길 모두 단절되고 있다. 그러나, 어귀길은 오히려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안길의 셋길화

마을을 구성하는 옛길은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옛길의 기능적 역할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마을의 주요공간을 연결하는 주된 동선길인 안길이 격자형 도로망에 의해 블록 내 소로로 남아 셋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주로 산록형에서 많이 나타난다. 또한, 어귀길이 새로운 가로에 의해 안길로 되면서 안길이 셋길로 되는 경우도 나타나며, 셋길은 역할에 변화없이 유지된다.

산록형에 4개(‘아랫영우리’, ‘바깥덕벌’, ‘고당’, ‘벌뜸’),

표 5. 안길의 셋길화

고개형에 1개(‘배티’), 곡형에 1개(‘수곡동옛마을’)가 있어 대부분 산록형에서 옛길의 변화가 일어난다. 특히, 안길이 셋길로 기능적 역할이 변경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입지별로 대표적인 마을을 위주로 분석한다.

산록형인 ‘바깥덕벌’은 격자형의 6m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여 옛 안길을 단절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 관통하는 간선도로가 안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옛 안길은 블록 내의 소로로 남아 새로운 도로망에서 파생된 셋길의 형상을 띠며, 주호로의 직접적인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셋길로 기능적 역할이 변경된다. 옛 셋길과 바깥길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길에 위치한 마을의 중심공간인 슈퍼, 평상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안길의 역할이 변경되었어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곡형인 ‘수곡동옛마을’도 격자형의 6m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며 안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옛 안길은 셋길로 변화되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던 보호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어귀길과 바깥길은 단절된다.

고개형 마을인 ‘배티’는 교통이 중요한 입지 선정 조건이 되며, 새로생긴 격자형 가로망이 마을을 관통하여 옛길을 단절시킨다. 이에 따라 옛 안길은 블록 내 소로로 남아 셋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 생긴 격자형 도로가 옛 안길과 어귀길, 바깥길의 역할을 하고 있어, 고개형 마을의 경우 셋길을 제외하고, 옛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어귀길이 안길의 역할을 하며, 안길은 셋길로 변화된 것이 있다. 산록형인 ‘고당’은 새로운 도로망(무심서로)에 의해 어귀길이 단절되었으며, 블록 내 일부가 남아있다. 이 어귀길은 마을 영역과 맞닿아 있고, 옛 안길과 이어져 안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깥길에서 마을 영역으로 진입하도록 바뀐다. 또한, 마을을 관통하는 새로 생긴 가로망(쌍샘길)에 의해 안길은 셋길로 기능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바깥길과 셋길은 새로운 가로망에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옛길의 유지

마을을 구성하는 길의 체계는 바깥길-어귀길-안길-셋길로 이루어진다. 산지형은 바깥길에서 직접 안길로 진입하며, 곡형은 바깥길에서 어귀길을 지나 안길로 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길은 마을을 구성하는 주된 가로로 마을 영역 내에 위치하며, 셋길은 안길에서 각각의 개별 주호로 연결된 진입로이다.

이러한 안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마을은 산록형에 2개(양달말(탑동), 호두나무거리), 고개형에 1개(갯말), 대곡에 2개(향교골, 탑골), 소곡에 2개(용사태, 도독골)로, 대부분 곡형에서 유지되고 있다.

안길이 유지되는 대표적인 입지유형인 곡형마을은 마을로 진입하는 어귀길과 주호로 진입하는 셋길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바깥길은 대곡형에서는 옛길

그림 5. ‘양달말(탑동)’의 가로체계

과 고개형에서도 일부 나타나며, 이들은 소곡형과 같이 바깥길을 제외한 어귀길과 안길, 셋길만을 유지하고 있다.

산지형에 속하는 ‘양달말(탑동)’의 안길은 마을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연결하는 마을의 주도로이다. 기존의 셋길이 연장되어 옛 안길과 만나고 있으며, 안길은 도로 폭만 확장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옛 마을의 중심공간인 ‘동네샘’, ‘웃샘’은 옛 안길을 따라 그대로 위치하고 있으며, 슈퍼와 같은 공공시설물¹⁷⁾도 안길에 면해있어 마을 사람들의 공동 이동통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안길에서 파생된 셋길은 대부분 산쪽으로 뻗은 막힌 골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마을 영역은 16,777 m²로 산록형 중 가장 큰 마을이고, 능선을 따라 군집하고 있으며, 마을 중간에 위치한 셋길이 연장되어 새로운 가로망을 형성한다. 연장된 셋길은 마을 중심부분을 지나간다.

옛 바깥길의 도로 폭이 10m로 확충되었으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통과도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산록형에 속한 옛마을의 특징처럼 마을의 남쪽에 흐르던 금천(金川)은 현재 복개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 바깥길의 폭이 확장된 것 뿐 아니라 복개된 하천 폭원이 23m인 중로로 바뀌었으며, 바깥길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바깥길의 증가로 마을간의 연결이 더욱 활발해 진다.

또한, 마을로 진입하는 어귀길은 도로폭만 6m로 확장되고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에도 이 길을 통해 마을로 진입하고 있다.

곡형 중 대곡형에 속하는 ‘향교골’은 안길의 형태를 유지하며 옛 안길의 좁은 폭을 8m로 확장하여 소방도로로

그림 6. ‘향교골’의 가로체계

17) 2010년 6월 30일~7월 1일 진행된 터줏대감과 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이용가능하게 한다. 안길 주변에 마을의 공동시설인 우물터와 슈퍼, 평상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안길의 역할을 현재에도 이어가고 있다. 옛마을의 입지유형 중 곡형에 주로 나타나는 어귀길¹⁸⁾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로의 폭이 10m로 확장되어 차량 진입이 마을입구까지 가능하며, 마을의 인지성을 부각시키는 지형지물이 어귀길 주변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바깥길 역시 도로 폭만 확장되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곡형에서는 바깥길, 어귀길, 안길 모두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소곡형에 속하는 ‘용사태’는 안길과 어귀길 모두 도로 폭이 확장된 채로 유지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바깥

그림 7. '용사태'의 가로체계

길의 경우 새로운 도로망에 의해 단절되어 블록 내 소로로 남아 옛길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오히려 소곡형에서는 새로운 도로망이 바깥길로 이용되며, 안길과 어귀길은 그대로 유지된다.

V. 결 론

청주 원도심 내 현존하는 22개의 옛마을은 지형적 형태에 따라 크게 능선에 위치한 산지형과 산마루를 중심으로 골이 패여 들어간 부분에 위치한 곡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지형에는 산등성이에 위치하는 산록형과 산허리에 위치한 고개형이 있으며, 곡형은 곡의 형상에 따라 크고 깊은 계곡에 주축의 방향과 직각으로 된 골짜기에 위치한 대곡과 큰 계곡에서 나누어진 산줄기와 곡저가 만나는 작은 골짜기에 위치한 소곡으로 세분할 수 있다. 또한 옛길의 가로체계는 바깥길, 어귀길, 안길, 셋길로 분류되며, 새로운 가로망의 형성에 따라 옛길의 형태가 유지, 변경, 그리고 단절되는 경우로 대별된다. 옛마을의 입지특성에 따른 가로체계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산지형 마을에 있어서 산록형은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안길이 셋길로 변경되며, 새로운 가로가 안길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 바깥길은 단절되지만, 셋길은 유지된다. 고개형은 고갯길에서 파생된 안길에 군집된 마을과 고갯길이 마을을 관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단절된다. 바깥길과 안길 모두 단절되며, 셋길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갯길이 마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옛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8) 이정훈 · 이정수 · 송용호(2005). 시각적 차폐도 분석을 통한 전통마을길의 공간위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 1(1), 206쪽, 바깥길과 마을을 연결시켜주는 마을의 직접적인 출입로인 어귀길은 마을에 대한 인지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6. 옛마을의 입지 유형별 옛길의 지속적 유지 및 변화

	바깥길	어귀길	안길	셋길	입지에 따른 옛 가로체계
산록형	×	(안길)	셋길	○	바깥길, 안길
고개형	×	×	×	○	바깥길, 안길
대곡형	○	○	○	(○)	바깥길, 어귀길, 안길
소곡형	×	○	○	(○)	바깥길, 어귀길, 안길

× 단절, ○ 유지, () 입지에 따른 대표적인 특성은 아니나 일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우를 서술.

곡형은 새로운 가로망의 개설에도 불구하고, 옛 안길과 어귀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대곡형의 경우 바깥길, 어귀길, 안길 모두 유지된다. 반면, 소곡형에서는 바깥길이 새로운 가로망에 의해 단절되어 새로운 가로가 바깥길로 이용되며, 어귀길과 안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도심 내 옛마을이 지닌 공간구조 및 건축상의 특징을 찾는 것이다. 이는 시대의 생활방식 변천에 따라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주생활공간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기초적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추후 각 마을의 상세한 공간구조, 즉, 필지체계의 변화, 주공간의 구성 및 변용과정 등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태영 (2000). 자연취락에 있어서 지명과 공간구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18(1), 189-195
2. 김태영 (2007). 청주옛길, 청주: 크리폼
3. 문병선 (2006). 곡계 지명 농촌마을의 입지특성과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청주.
4. 신진동 (2008).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입지와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성남.
5. 이정훈 · 이정수 · 송용호 (2005). 시지각 차폐도 분석을 통한 전통마을길의 공간위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 1(1), 203-210.
6. 전종환 (2005). 한국촌락사회지리학의 주요 개념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40(3), 353-368.
7. 전종환 · 서민철 · 장의선 · 박승규 (2007). 인문지리학의 시선, 서울: 논형.
8. 최장순 · 정구용 (2002). 영동지역 농촌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9. 청주시 충북대인문학연구소 (1999). 청주 지명유래. 청주시
10. 청주시(1994). 청주도시계획변천사 도집.
11. 청주시지편찬위원회 (1997). 청주시지(上, 下), 청주: 미진문화사.
12. 국토지리정보원 (1913). 청주시 지적원도.
13. 국토지리정보원 (1968). 청주시 항공사진.
14. 국토지리정보원 (1979). 청주시 지형도.
15. 황용운 · 이경희 (2002). 전통마을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봉화 해저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대회, 22(2), 505-508.
16. 홍경희 (1985). 촌락지리학, 파주: 법문사.

접수일(2010. 8. 27)

수정일(2010. 10. 4)

게재확정일자(2010. 10. 15)